

국내증시 떠나는 外人

삼성전자·SK하이닉스 5% 매도

(한 달간)

外人, 지난달 폭락장 후 차익실현 증권사, 추가 부진에 목표가 줄이하향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 기대치 하회 스마트폰·PC 업체, 재고소진 주력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 국내 반도체주도 비슷한 흐름 보여

‘검은 금요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만 약 5조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속되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이하향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 18.77% 떨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6만전자’로 다시 내려오면서 목표주기도 줄이하향되고 있다. 이날도 SK하이닉스는 0.38% 소폭 올랐으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03%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KB증권은 기존 13만원이었던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원으로 대폭 내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3분기 스마트폰,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하며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분간 스마트폰, PC 업체들은 재고 소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024년, 2025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5%, 11%씩 하향한 37조9000억원, 57조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같은 날 현대차증권도 삼성전자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 이미지.

목표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0만4000원으로 하향했으며, 앞서 3일에는 다음투자증권이 11만원, 6일에는 DB금융투자가 10만원으로 목표가를 내렸다. 반도체주의 주가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증권가들도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만 폭락장을 보였던 지난달 2일 ‘검은 금요일’과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투심이 반전되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2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조6996억원, SK하이닉스를 1조2299억원 팔아치웠다. 두 종목만 약 5조원을 털어낸 셈이다.

직전 한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선호를 유지했으나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이 있는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더 큰 모습”이라며 “증시의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 국내 증시 내 거래비중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증지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 번 4%대 추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꼽힌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후 최근 2주간 20.5%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뚜껑을 연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즈’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쇼크’ 수준”이라며 “최근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차익실현 압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나스닥, 30년 만에 新 반도체 지수 공개

(ASOX)

엔비디아·TSMC·브로드컴 등 구성 미래셋운용 “레거시 프리” 특징 ASOX 지수 추종 ETF 선보일 예정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ASOX)’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PLX Semiconductor Sector)’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지수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미국 나스닥과 미래셋자산운용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포착-AI 반도체와 그 너머’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ASOX 지수’는 반도체 주 전반에 투자하는 SOX와 달리 AI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반도체주의 비중을 높였다. ASOX는 ▲엔비디아 20.8% ▲TSMC 18.5% ▲브로드컴을 17.6%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ASML Holding, AMD, 퀄컴, ARM 등 최대 20개 종목을 담았다.

이는 ASOX가 기존 SOX와 달리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업체를 지수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이정환 미래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SOX의 특징으로 ‘레거시 프리(Legacy Free)’를 꼽았다. 데이비드 초이(David Tsoi) 나스닥 아시아태평양장부 인텍스 리서치 총괄 헤드도 “ASOX 지수 구성 시 AI 관련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했다”며 “종합반도체기업(IDM) 기업, 7나노미터 이하 제품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위탁 업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ASOX의 수익률은 SOX 및 다른 지수보다 높다. 지난 5년 수익률을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난 8월31일을 기준으로 백



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나스닥×TIGER ETF 세미나에서 미래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미래셋자산운용

테스팅(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 전략 실행 테스트)한 결과 ASOX는 5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X는 274%, 나스닥100지수는 16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1% 오르는 데 그쳤다.

데이비드 초이 헤드는 “AI 성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나 AI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AI에 대해 오히려 적게 투자하고 있다”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미래셋자산운용은 ASOX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남기 미래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부사장은 “(ASOX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반도체 지수로, 레거시 프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지면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에밀리 스펀링 나스닥 인텍스사업 글로벌 총괄(수석부사장)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투자 지수를 산출해 기대가 크고, 이를 한국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는 미래셋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뛰어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TIGER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TO 법제화 재개... 증권사 기대감 ‘쑥’

LS증권, 美 유리버스와 STO ‘맞손’ 하나증권, MTS에 STO 거래 탭 신설 법제화 과정 맞춰 관련 사업 준비

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제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동안 움츠렸던 증권사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 먹거리선점을 위해 STO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도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시장은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원, 2030년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S증권은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 투자(FI),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참여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STO시장 개화에 대비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강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중에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 토큰증권발행(STO) 거래 탭을 신설하고,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9월부터 MTS 내 제공하고 있는 조각투자 정보 제공 대상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테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사들이 토큰권을 유통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사 업무 일부를 증권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며 “증권사들이 법제화에 맞춰 계속 작업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MTS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리 조각투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던 미래셋·한국투자·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에서는 STO 시장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관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外人, 지난달 채권 11.6兆 순매수... ‘올해 최대’

통화스왑 금리 하락에 따른 현상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연간 최대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캐리 트레이드(일본 엔화를 빌려 전 세계 주식·채권 등에 투자) 단기 충격 이후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1조6460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7조3750억원, 통안채(통화안정채권)는 4조1970억원 순매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통화스왑(CRS) 금리 하락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3343억원을 순매수해 지난 7월(3조392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채를 제외한 기타 금융채 순매수 규모가 93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채(8642억원), 국채(77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0조1790억원으로 7월(71조389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채발행이 18조6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2조7000억원 줄었다. 회사채 발행은 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9600억원 감소했다. 금융채 발행은 28조304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23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지난달 총 27건(2조214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9740억원 늘었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8조7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6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을 수요예측 금액으로 나눈 참여율은 364.7%로 전년 동월 대비 160.6%포인트 감소했다. 미매각은 A등급에서 1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다. /원관희 기자